



대학주보

전공기초 · 필수 4개 중 1개 강사가 맡았다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전공기초 · 필수 과목은 학생들이 입학 이후 처음 접하게 되는 교과목이다. 동시에 학과의 교육 방향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핵심 과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구성은 학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학과에서는 상당수의 전공기초 · 필수 강의를 강사가 맡고 있다. 우리신문은 단과대별 전공기초 · 필수 강의의 담당 교원 현황을 분석해 봤다.

전공기초 · 필수 강의 25.3% 강사가 담당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지난 학기 전공기초·필수 강의의 경우 총 1,729개 강좌 중 437개(25.3%)를 강사가 담당했다.

단과대별 전공기초·필수 전체 강의 대비 강사 담당 강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음악대학 80.2% ▲미술대학 68.8% ▲무용학부 54.8% ▲자유전공학부 38.9% ▲호텔관광대학 35.3% ▲국제대학 33.3% ▲예술·디자인대학 32.1% ▲문과대학 27.8% ▲간호과학대학 23.0%

▲경영대학 21.9% ▲정경대학 21.1% ▲체육대학 18.4% ▲외국어대학 18.2% ▲생활과학대학 14.3% ▲한외과대학 9.7% ▲생명과학대학 4.8% ▲약학대학 2.7% ▲이과대학 2.1%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8% ▲공과대학 0.7%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전자정보대학은 강사 담당 전공기초·필수 강의가 없었다.

일부 학과에서는 전임교원이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담당하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학과는 이를 원칙으로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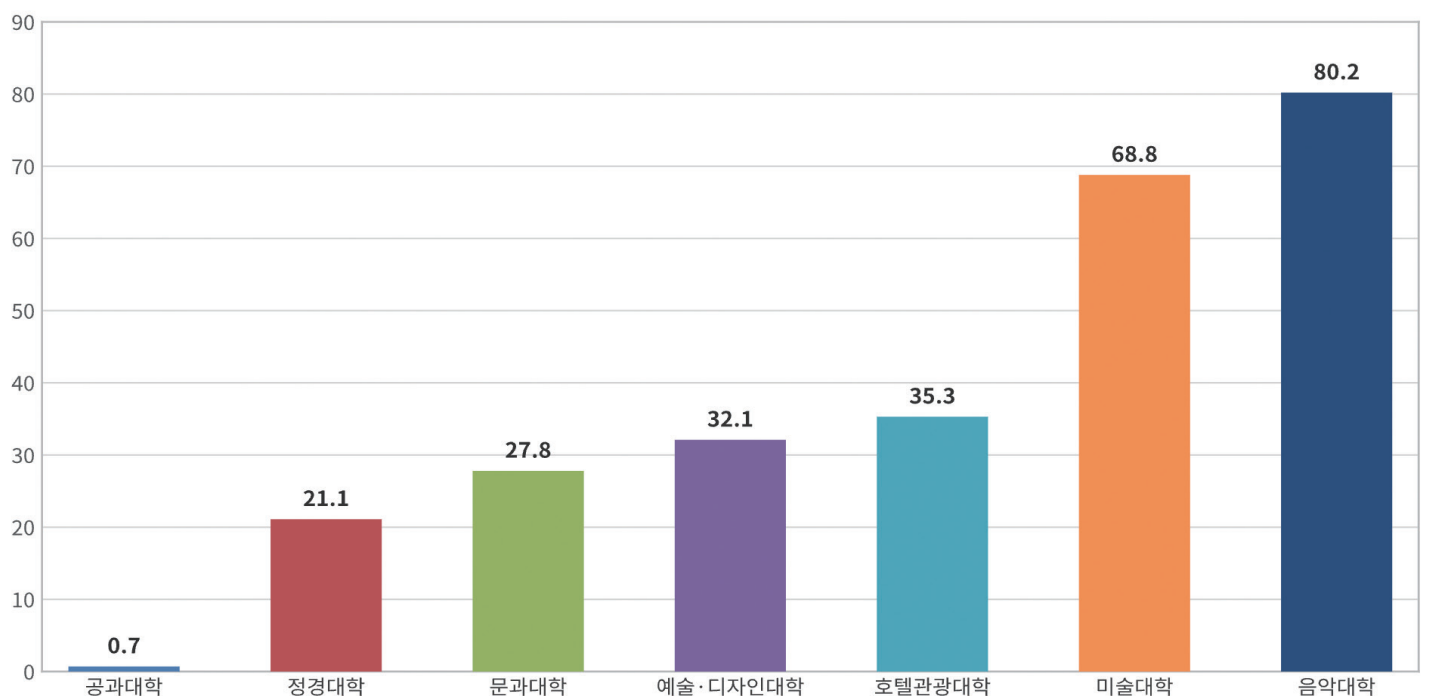
고 있다. 사학과 박윤재(사학) 학과장은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분야인 만큼 전임교원이 책임감을 갖고 수업하는 것을 학과 내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강사 담당 강의 비율이 0.7%에 그친 공과대학의 최진환(기계공학) 학장도 “공학은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이 이

뤄져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전공과목을 강사에게 맡기기 어렵다”며 “전공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능하면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게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교원 구성에 따른 차이를 체감하고 있었다.

3면에 계속 →

2026-1학기 전공기초·전공필수 담당 전임 교원 대비 강사 비율 (%)



다전공 제도 총괄할 미래교육처 출범 '아직'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다전공 의무이수제를 총괄하게 될 '미래교육처'가 현재까지도 공식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부는 그간 미래교육처를 다전공 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밝혀왔기에, 준비 방향을 잡지 못한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교육처는 기존 교무처와 교육혁신사업단, 교수학습개발원을 통합·재편해 교육 정책과 학사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대학의 중

장기 발전계획과 교육환경 변화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달 2일 신문방송국 언론4사와의 간담회 당시 본부는 미래교육처를 다전공·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교육과정 운영, 이수체계 관리, 학생 안내와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 약 2달이 더거리는 현재까지도 미래교육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거버넌스 개편을 담당하는 기획

조정처에 따르면 현재 미래교육처 신설을 위한 처무규정과 위임전결 규정 개정, 조직 운영체계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와의 협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다전공을 준비하는 신입생들의 혼란이다. 올해 입학해 2학기를 이수한 신입생은 내년 1학기부터 다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학과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선수강 과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행과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재로 다전공 관련 단과대별

신청·승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고, 학생들은 충분한 정보 없이 이번 학기 희망과목담기를 마치게 됐다.

기획조정처는 '처' 단위 행정조직 신설은 단순한 조직 추가가 아닌 기존 부서와의 기능 재설계·인력 운영 체계 정비·예산 구조 검토·관련 규정 정합성 확보를 포함하는 종합과정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전략기획팀 김보영 팀장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출범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새

롭게 출범할 부서들이 순탄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우선했다”며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절차와 검토 과정을 신중하게 밟아가다 보니 시간이 좀 소요된 것”이라 말했다.

현재는 거버넌스 개편 관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하일 기획조정처장은 “2학기 시작 시기를 딱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9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인과도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종합

교원도 직원도 아닌 이름 ‘한국어 강사’

무기계약직 명문화 두고 평행선, 갈등 장기화 우려도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국제교육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진학과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한국어 강사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교원도 직원도 아닌 모호한 신분 탓에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도 장기화 되고 있다. 이는 노사 간 의견 대립을 넘어 유학생의 초기교육 환경과 직결돼 있다. 우리신문은 한국어 강사들이 직면한 국제교육원의 행·재정 상태와 노사 갈등의 쟁점을 짚어봤다.

교원도 직원도 아니다 모호한 한국어 강사 신분

한국어 강사는 국제교육원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공식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인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의 지위는 모호하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이나 정규 직원으로 편입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정규 직원이 월급제 형태로 호봉이나 연봉을 보장 받고, 교원은 월급을 받는 것과 달리 한국어 강사는 강의 시수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다. 유학생 수 감소나 교육원 운영 방침에 따라 강사 1인당 배정되는 강의 시수가 줄어들 경우, 실수령 임금이 급격히 감소해 생계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교육원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한국어 강사 A씨는 “2020년 연간 실수령액은 22,880,200원이었으나 2024년은 15,044,770원으로 감소했다”며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 투잡을 뛰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이러한 계약 형태로 인한 문제는 임금 체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봄·여름·가을·겨울 4학기 로 운영되는 국제교육원 특성상 학기 사이 방학에는 수업이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다. 2020~2021년 노사 합의 당시 사측은 연간 임금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안분제를 도입하고 주 10시간의 기본 시수와 이에 따른 급여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어 강사가 속한 경희학원지부는 이러한 기본 시수 및 급여 보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본관 분수대 앞에서 한국어 강사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사진=서라수 기자)

고 지적한다.

강사가 경조사나 본인 치료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 강사 투입 비용을 해당 강사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합의 내용대로라면, 강사는 주 1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아야 하지만, 휴가에 따른 대체 강사 비용이 휴가를 사용한 강사의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된다. 수업 일정이 있던 날 조사로 휴가를 사용한 A씨는 “실제로 대체 강사가 진행한 수업 시수 60여만 원이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됐다”며 “최소한의 임금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라고 말했다.

동시에 실제 강의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강의 외 무급 노동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어 강사들은 강의 준비와 교재 제작, 학생 픽업 등 강의 이외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직군 규정의 한계와 명문화 요구 합의 조건 두고 갈린 해석

노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7일부터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합의서 작성을 목표로 공식적인 노사협의를 시작했다. 인사

처와 국제교육원 행정실 등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현재까지 189일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간 6차례의 인사운영위원회와 2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치며 협의서 초안을 15차례 수정 및 보완했다.

이 과정과는 별개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조정 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025~2026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어 강사의 시급은 1,000원 인상됐으며, 인상분은 2025년 3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경희대 노사, 2026년 임금 2.8% 인상 합의 - 국제교육원 강사 처우 개선 논의 테이블도 마련/2026.03.03.)

현재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어 강사의 무기계약직 명문화와 고용 계약 주체다. 노측은 2020~2021년 노사 합의의 취지를 살려 합의서에 무기계약직 신분을 명시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경희대학교를 계약 주체로 명문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제교육원 원장이 새로 부임한 후 합의서에서 무기계약직 문구 삭제와 강의평가 평균 평점 4.0 이상을 계약 갱신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했다. 현재 우리학교에 존재하는 직군은 사무직, 기능직, 계약직 등으로, 인사제도에 존재하지 않

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모든 구성원의 급여는 경희대학교 재무처의 지급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며 “한국어 강사의 소속이 부속 기관인 국제교육원이므로 소속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평가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강의 평가는 강사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제안했는데, 강사들의 반대로 즉각 철회했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재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멈춘 행정 흔들리는 유학생 교육 환경

코로나 이전 7~800명 수준이던 국제교육원 유학생 수는 2022년 이후 300 후반에서 40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강사들에게 배정되는 강의 시수 또한 급감했다. 한국어 강사 측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당 20시간의 강의를 담당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주 10시간 수준으로 감소해 한국어 강사들의 소득 감소로 직결됐다”고 호소했다.

또한 행정 인력 부족으로 담당 학생들의 출결 관리나 학생 정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 B씨는 “지난 6월에 실시된 기말

고사는 행정실 조교 1명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시험지 복사와 배포 등 시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타 대학과 달리 공식 교안이 제공되지 않는 탓에, 강사 개인이 교안을 직접 제작해야 하는 상황은 교육 과정의 편차를 높인다.

한편, 어학당 한국어 강사의 고용 지위와 관련해 연세대와 서울대는 단체협약으로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불안정을 완화시켰지만, 강의시수 변동에 따른 임금 보전, 강의 외 노동가치 인정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국제교육원은 유학생 수 회복을 통한 자연스러운 시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올해 2월 우수 인증대학에 선정돼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 학기에 개설반과 강의 시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 관련 쟁점에 대한 질의에 대학과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향후 추가 취재를 통해 대학과 국제교육원의 향후 방침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단과대별 편차 뚜렷 전임교원 부족이 대체적인 배경

1면에서 계속 →

전공필수 강의를 강사에게 수강한 호텔관광대학 소속 A 씨는 “앞선 전공 내용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성모(산업경영공학 2025) 씨는 “공과대학은 대부분의 전공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해 수업의 질과 학과 커리큘럼의 연속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전임교원이 전공필수 강의를 담당하는 기조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수진(행정학 2025) 씨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전공기초 강좌는 학생들이 전공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전공 지식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과별 사정 제각각 “전임교원 부족” 목소리

외국인 전용 강의 운영, 대학원 강의, 분반 수업 등 학과별 운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취재 과정에서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강사가 담당하는 배경에는 대체로 ‘전임교원 부족’이 있었다.

국어국문학과는 지난 1학기 전공기초·필수 강의 10개 가운데 7개를 강사가 담당했다. 국어국문학과 이주희(언어학) 학과장은 “외국인 전용 분반 운영과 전임교원의 연구년, 정년퇴직 이후 교원 충원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현재는 전임교원 부족으로 모든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교수 충원은 학과가 아닌 대학 본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호텔관광대학의 경우 지난 1학기 전공기초·필수 강의 51개 가운데 18개를 강사가 담당했다. 호텔관광대학 서원석(호텔경영학) 학장은 “글로벌 Hospitality·관광학과는 전임교원의 안식년으로 지난 학기 모든 전공기초·필수 과목을 강사가 담당했다”며 “신설 학과 특성상 현재 교원 채용을 진행 중이며, 적은 수의 전임교원이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함께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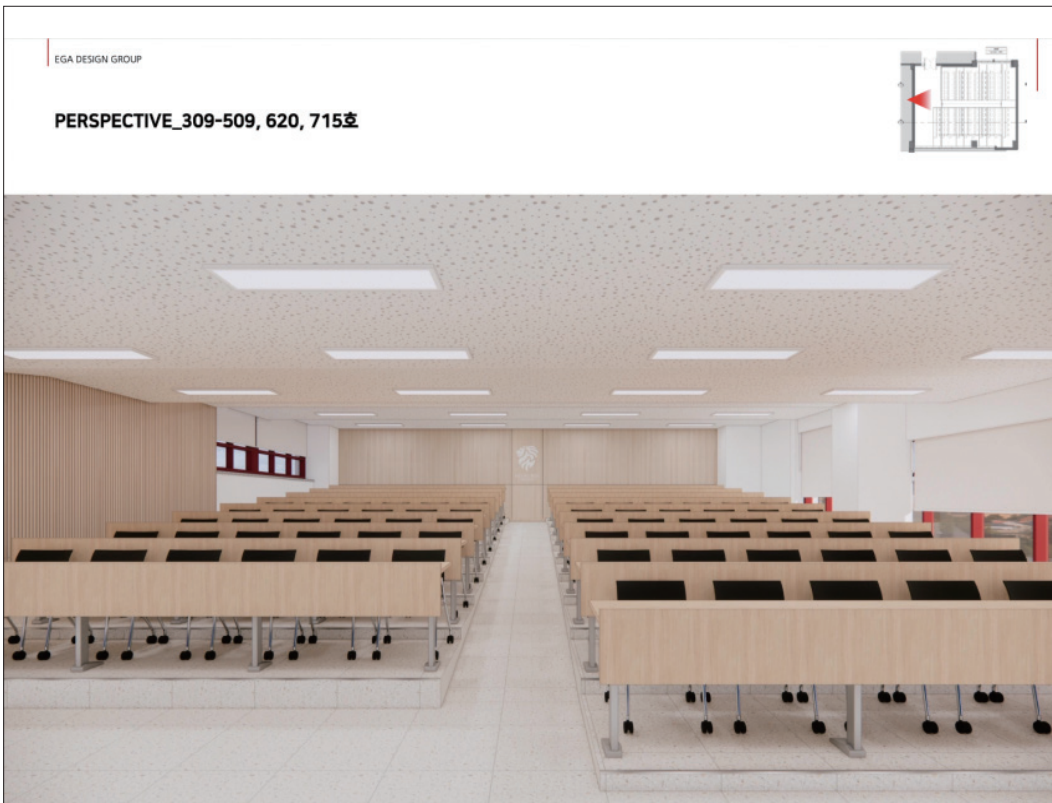
한편 예체능 계열의 경우 다른 단과대학보다 강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디자인대학 김진오(도시계획학) 학과장은 “세부 전공이 다양하고 분야 변화가 빠른 특성상 현업 전문가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예체능 계열의 높은 강사 비율은 단순한 교원 부족이 아니라 학문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기간 교수 충원 어려운 상황 학과 차원 노력 병행해야

본부는 전임교원의 학부 강의 참여를 우선하되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캠 김성수(우주과학) 교무처장은 “본부에서도 학부 강의는 전임교원이 우선 말도록 학장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나, 단과대학마다 학문적 특성과 운영 여건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강사 비율이 높아진 학과에 대해선 단과대학의 사정을 청취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학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사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는 전임교원 충원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학과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응용영어통번역학과 박해인(응용언어학) 학과장은 “모든 필수과목을 전임교원이 담당하기 어렵다면 핵심적인 전공필수 강의 일부라도 전임교원이 맡아, 학생들이 저학년 때 학과 교수들과 충분히 교류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학과가 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충원과 같은 학교 차원의 구조적인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학과는 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청운관 309·509호, 620호, 715호 계단식 강의실 리모델링 조감도. 좌석 수를 줄이고, 책상은 고정하되 의자는 이동식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사진=총무관리처 관리팀 제공)

서울캠 방중 리모델링 한창 대형강의실 책상·의자 전면 교체

오채원 기자 chaewonnida@khu.ac.kr

【서울】개강을 앞두고 교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학생회관과 문과대학 공사는 지난해 발표된 교내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 ‘인프라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중앙도서관과 청운관은 별도로 진행되는 리모델링이다.

인프라 5개년 계획 2년 차 순환 학생회관·문과대학 리모델링

학생회관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3층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학생회관 보수는 202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구역을 나눠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층 석면 철거와 전 층 화장실 공사가 이뤄졌다. 이번 2~3층 공사는 해당 계획의 2년 차 공정에 해당한다.

문과대학도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는 8월 중순까지 2층과 4층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1, 3층은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남은 층이 이번 공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조성

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3층 강의실과 같은 형태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희기록관, 수장고 정비 열악한 보존·업무 환경개선

경희기록관은 지난 6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사무실, 수장고, 복도 등을 정비한다. 기록관 남기원 차장은 이번 리모델링에 “건물 자체가 오래됐고, 지난해 여름에는 폭우로 누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열악한 보존·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장 석면 텍스 제거, 벽면 도색, 곰팡이 제거, 이중창 설치, 바닥 교체 등이 공통으로 이뤄진다. 특히 404호 수장고는 중요기록물 수장고로 탈바꿈한다. 향온항습 등 보존 환경이 갖춰지고 시청각자료와 경희의 역사·이념을 상징하는 문서, 도서, 박물관 등이 통합 보관될 예정이다.

기록관은 중앙도서관 4층에 위치해 있다. 공사 기간에는 중도 제4열람실도 함께 휴실한다. 중도김지영 차장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방학 중 일부 기간 열람실을 운영하지 않는 방침이 있는데, 마침 기록관 리모델링 시기와 겹쳐 단계

됐다”고 휴실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운관, 계단식 강의실 개선 좌석 수 줄이고 의자 교체

청운관에서는 계단식 강의실 전면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장에 따르면, 307호, 309호, 407호, 409호, 507호, 509호, 620호, 715호 등 정원 140석 규모의 계단식 대형 강의실 8곳이 건축·전기 공사를 포함한 전면 리모델링 중이다. 2년 전 이미 리모델링된 207호도 출입문 쪽 일부 공사가 추가로 진행되며, 그 외 일반 강의실 30여 곳은 책상과 의자를 교체한다.

김 실장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항목에 계단식 강의실의 불편 사항이 다수 접수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고정형 책상은 폭이 좁고 좌석 간격이 협소해 가운데 자리에 앉은 학생이 자리를 뜨려면 옆자리 학생 전원이 일어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좌석 수를 줄이고 책상은 안전상 고정을 유지하되, 의자는 이동식으로 교체한다. 김 실장은 “학생들의 신체적 피로도를 줄이고 수업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라 설명했다.

4 종합

전월세 부담에 단기임대 수요 증가...법적 보호 장치는 부족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방학 중 오피스텔 단기임대 구합니다”, “여자이고 비흡연자입니다”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여러 조건을 건 단기임대 문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짧은 기간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틈새시장’ 노리는 단기매물 전대차계약 확대

방학이나 휴학, 교환학생 등의 이유로 단기임대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단기임대는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집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계약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단기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기존 임차인은 전대인, 새롭게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차인이 된다.

단기임대 거래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활발해졌다. ‘삼삼앳투(33m2)’의 거래 건수는 2021년 약 600건에서 지난해 약 16만 건으로 약 267배 증가했다. 지난 20일 해당 플랫폼에서 ‘경희대학교’를 검색한 결과, 1주부터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물 120여 건이 확인됐다.

방중 두 달간 거주할 전차인을 구하고 있는 김민정(원자력공학 2023) 씨는 “단기임대 매물이 경쟁이 심해 가격을 낮춰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높은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낮은 가격이라도 방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상승과 전세시장 위축이 단기임대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일반대학원 스마트부동산학과 구한민(도시공학) 교수는 “월세 상



단기임대 매물들을 플랫폼을 통해 쉽게 거래 가능하다.

(사진=원희재 기자)

승과 장기 거주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원룸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틈새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 권대중(경제부동산학) 석좌교수 또한 “전세사기 여파로 관련시장 위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도 단기임대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2021년 약 196만 명보다 42.2% 증가했다. 오케이 공인중개사 이영섭 대표는 “학기나 교환학생 일정에 따라 이동이 잦은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전대차계약을 상담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

단기임대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법적 취약함에 놓여있다. 단기계약에서 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실거주가 아닌 일시거주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무법인 좋은생각의 정성주 대표변호사는 “임차인과 달리 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는 권리인 우선변제권도 적용받지 못해 사기 피해와 법적 권리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전대인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민법 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6개월간 단기임대료 내놓은 A씨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다”고 말했다.

전문 중개자 없는 매물 거래 ‘플랫폼 역할 강화 필요’

임대인들은 학생들의 단기임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기임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전차인 사이의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학교 인근 오피스텔 임대인 문병민 씨는 “전대차계약은 주택 관리와 책임소재 측면에서 임대인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원룸 임대인 이종건 씨 또한 “단기임대 기간에 월세 조건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판매할 때 법적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단기임대를 공유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단기임대는 숙박업으로 인정받지 않아 안전시설 의무나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씨는 “최근 재테크로 단기임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결국 피해는 임대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삼앳투 등 단기임대 플랫폼은 온라인 계약과 보증금 보관 등 거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매물 등록자가 해당 주택을 빌려줄 권한을 갖고 있는 지,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이용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 간 거래가 중심인 단기임대 시장에서 플랫폼과 중개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구 교수는 “허위매물, 보증금 미반환, 과도한 관리비, 불명확한 중도해지 조건 등의 주요 위험 속에서 매물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또한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전문 중개자 없이 거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매물의 신뢰성과 임대인의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HU:VOICE’, 10년 만의 ‘구성원 직접 제안’

신정빈 기자 wjdqls2002@khu.ac.kr

우리학교가 구성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대학 정책으로 연결하는 제안제도 ‘KHU:VOICE(쿠:보이스)’를 시행한다. 2016년 이후 중단됐던 제안 제도를 약 10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1차 접수는 오는 8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쿠:보이스는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지

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 운영된 제안 공모전은 새로운 시도였지만 참여 경로와 대상이 제한돼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고, 동문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도 부족했다. 이에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이 대학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기존 교원·직원·학생에서 동문까지 확대했다. 이번 제도는 제안자뿐 아니라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한 실행부서에도 공동 포

상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수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인 것이다.

신청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 또는 부서(팀) 단위로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제안 신청서와 제안 세부 계획서를 작성해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분야는 ▲가치창출(Value-up) ▲열린행정(Open) ▲혁신(Insight) ▲협업(Co-creation) ▲실행(Execution) 등 5개 분야다. 학사제도와 캠퍼스 환경 개선, AI

활용 혁신,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접수한다.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된 제안은 실용성, 경제성 및 능률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 제안은 소관 부서로 이관돼 약 6개월간 제도와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추진된다. 최우수상에는 200만 원, 우수상에는 100만 원, 장려상에는 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실행부서

에도 별도의 포상이 주어진다. 1차 접수 이후에도 제안은 상시 접수되며, 2차 심사는 2027년 2~3월 진행될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구성원의 창의적인 의견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학사제도와 캠퍼스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행력을 높였다”며 “교원·직원·학생·동문 등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구부 ‘제 42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 최종 3위로 마무리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농구부가 ‘제42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에서 고려대와의 14일 열린 준결승 경기에 패배하며 최종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우리학교는 B조에 편성돼 중앙대·동국대·상명대·한양대를 상대로 예선을 치렀다. 지난 6일 상명대와의 첫 경기에서 75-60으로 승리한 데 이어 8일 동국대전과 10일 한양대전에서도 각각 74-53, 99-85로 승리했다. 그러나 11일 열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중앙대에 51-63으로 패하며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6개 팀이 오른 본선에서 우리학교는 건국대와 6강전을 치렀다. 경기는 2쿼터까지 37-32로 팽팽하게 전개됐다. 오벨레존(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20득점 활약과 루키 신은찬(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의 3쿼터 5득점 맹공에 힘입어 점수 차를 58-49까지 벌렸고, 이를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를 거뒀다.

김현국 감독은 “상반기 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내며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도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선수들의 자신감이 승리로 이어졌다”며 “평소 팀 훈련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부분들이 차곡 차곡 쌓인 결과가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6강전을 승리로 장식한 농구부는 준결승에서 이번 대회 무패를 이어가던 고려대를 만났다. 우리학교는 지난 4월 열린 정규리그에서도 고려대에 69-77로 패한 바 있다. 1쿼터에서는 김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9

득점 활약에 힘입어 14-19로 비교적 선전했지만, 2쿼터 들어 점수 차가 24-43까지 벌어지며 분위기를 내렸다. 이후에도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49-91로 패했다. 고려대는 이후 결승에서도 승리하며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주장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공격이 매끄럽게 전개되지 않아 선수들끼리 호흡을 더 맞춰야겠다고 느낀 경기였다”며 “4강까지 연달아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았던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며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상대의 강한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과 공격 패턴이 발휘되지 못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후반기 남은 리그 일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선수는 “공동 3위도 좋은 성적이지만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후반기 남은 리그에서는 더 이상 패배가 없다는 각오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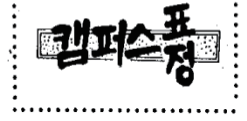
한편 농구부는 오는 9월 7일 성균관대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리그 일정에 돌입한다. 김 감독은 “후반기에는 이번 대회에서 패했던 중앙대와 고려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며 “남은 중요한 경기들을 모두 승리한다면 정규리그 우승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상대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구부는 42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공동 3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농구부 프론트 KBF 제공)



사자상에 사용될 원석을 옮기는 모습



“역사의 어둠을 깨는 빛으로,,

단단한 어둠의 겹질을 깨뜨리고 용솟음쳐 경희의 기상이 될 사자상을 잉태한 돌의 모습이다. 사각의 돌이 한마리의 포효하는 사자가 되기 위해 받는 고통을 딛고, 살아움틀거리는 냇으로 고즈넉히 경희역사를 지켜나갈 사자상이 되듯이.

〈어용자 記者〉

(1988년 10월 10일 자 대학주보)

“그대 살아 숨 쉰다면 경희 이름으로 전진하라”

장현석 (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⑦
‘웃는 사자상 ②’

여기, 언제부터가 경희인들 사이에 자주 회자해 온 문구가 있다. 최근에는 학교 축제 곳곳에도 등장했다. “그대 살아 숨 쉰다면 경희 이름으로 전진하라.” 대학 공식 슬로건도 아니고,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기록을 추적해 보면, 1987년 5월 대통령기 대학야구대회에서 경희가 우승했을 당시에 이 문구가 경희인의 기개를 복돋운 응원 구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이 문장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 실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앞 동의마당에 있는 사자상에서 찾을 수 있다.

동의마당에 사자상이 건립된 것은 1989년 가을이다. 당시 한국 사회는 학생운동이 여전히 치열했고, 많은 대학에서 본부와 학생 간 긴장이 이어졌다. 경희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희는 학내 구성원 간의 화합을 모색하고자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생운동이 정치투쟁에 경도되었다는 자

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1987년 총학생회 산하에 ‘경희발전추진위원회’가 조직됐다.

이들은 학내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캠퍼스 환경 개선 운동과 함께 개교 40주년을 기념할 상징물로 사자상 건립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의기투합해 5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1988년 조각에 사용될 원석을 채취해 약 1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한 것이 바로 지금 동의마당에 서 있는 사자상이다. 경희 구성원의 화합으로 빛어낸 뜻깊은 기념물인 것이다.

이 사자상에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교내 다른 사자들과 달리 이 사자상은 웃고 있지 않다. 근엄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본관 앞 사자상과 비교해 보면, 그 대비는 더욱 분명해진다.

사자상 제막에 즈음해 당시 『대학주보』는 “40년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자상, 경희의 미래를 밝혀줄 횡발로 남기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듬해인 1990년 개교 41주년 특집 기사 역시 이 사자상을 “경희인의 기상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소개했다.

동의마당 사자상이 단순한 기념 조형물이 아니라, 엄숙한 시대를 살아가던 경희인들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상징물이었음을



사자상 제작에 앞서 만들어진 견본 석고상 (경희기록관 소장)

집착할 수 있다. 그 시절 경희인들은 ‘웃는 사자’의 온화함보다는 웅맹한 사자의 근엄함과 진취성을 택했고, 그 모습에 앞으로 도약할 경희의 미래를 투영했던 것은 아닐까.

전진하는 사자의 앞발치에 새겨진 결연한 글귀는 마치 이 사자가 토해내는 사자후 같다. 그 라운드에 올려 퍼지던 응원의 메시지가 돌에 아로새겨져,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자상과 함께 캠퍼스 한편을 지키고 있다. 옛 선배들이 미래의 후배들을 향해 남긴 이 문구는 세대를 건너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경희의 다짐이다.

“그대 살아 숨 쉰다면 경희 이름으로 전진하라.”

6 사람



모교에 방문해 정책 구상을 이야기하는 오중석 시의원. 그는 “대학 시절 여러 사람을 만난 경험이 정치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사진=한민 기자)

“청년이 스쳐가지 않고 정착하는 회기·이문 만들겠다”

한민 기자 likeasloof@khu.ac.kr

오중석(법학 1997) 동문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제2선거구(회경·이문·회기) 서울시의원으로서 당선됐다. 2014년 첫 지방선거 이후 네 차례 선거를 거치며 구의원 1회, 시의원 2회에 당선된 그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당선 지방의원이다. 특히 ‘청년 정책’을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아온 그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 강조했다. 오 동문을 만나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로드맵을 들어봤다.

모교 앞 거리를 의정활동의 현장으로

오중석 시의원은 졸업 직후인 20

대 후반, 우리학교 경제학 교수 출신의 17대 국회의원인 박명광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턴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19대 국회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원래 출마에 뜻이 없었지만, 당시 동대문구 갑 안구백 국회의원이 “보좌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돼 보라”고 제안해 우리학교 인근 기초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그렇게 2014년 만 35세의 나이로 회기·회경을 담당하는 동대문구 의원에 당선됐고, 2018년에는 회경·이문·회기를 담당하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에는 같은 선거구에서 시의원 재선을 도전했다가 낙선을 경험했으며, 올해 다시 징검다리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우리 집안은 4대에 걸쳐 동대문에 뿌리 내려 살아왔다”며 동대문구와 강한 유대를 강조했다. 이어 “학생 때 건

던 파전 골목을 구의원이 되어 정비했고, 어두웠던 통학길의 안전을 이 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원은 ‘동네의 살림을 감시하고 고치는 사람’으로, 시의원은 ‘서울시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그는 구의원이던 시절엔 ▲회기동 파전골목 개선 ▲토끼굴 개선 ▲회기파출소 이전 등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시의원 초기에는 ▲외대앞역 리모델링 ▲외대앞역에서 신이문역 구간 방음벽 설치 ▲홍릉 도시재생 ▲캠퍼스타운 조성 ▲시내버스 3216번 노선 조정 등을 추진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지역의 숙원을 해결해 온 과정을 두고 “학생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길들에 나의 지난 10년이 스며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동대문구 로드맵 “청년이 정착하는 구조 설계”

그가 1순위로 제시한 공약은 ‘회기 청년정착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원룸·고시원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연계 ▲청년 맞춤형 코리빙 주거 확산 ▲전세사기 예방 ▲보증보험·법률·금융 연계 지원 ▲회기역 보행·야간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 중 코리빙 주거에 대해서는 “주방이나 거실같은 공유 공간과 각자만의 개인 공간이 보장되는 새로운 주거 형태”라며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움도 느끼는 청년들에게 제격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3개 대학(경희대·외대·시립대) 총학생회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연합 기숙사에 대해서는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보통 일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최대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동민 동대문구청장도 시립대 출신이기에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구청과 잘 협력해서 연합학사·상생학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 대해서는 ‘캠퍼스타

운 2단계 추진’을 약속했다. 오 의원은 “우리학교 캠퍼스타운은 지난해 서울시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았고 입주 스타트업도 76개로 참여 대학 중 가장 많았다”라며 “이런 성과가 창업을 넘어 주거·문화·일자리가 연결된 생태계로 키우는 것이 캠퍼스타운 2단계의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청년은 실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패 없이 처음부터 성공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사업에 실패해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청년이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약 3만 명 가운데 2030이 75%에 달한다. 그는 “기회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세사기”라고 지적하며 “대학가 원룸촌이 밀집한 회기·이문이야말로 이 문제의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쁜 어른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세사기를 친다는 건 꿈을 시작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겠냐”며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대표 공약은 ‘회기동 서브컬처 거리’ 조성이다. 오 의원은 “내가 우리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학교는 대학가의 중심이었고 홍대 신촌에서 여기로 왔었다”며 “그때는 락 카페 등 모든 문화를 선도하고 상권이 쏠 발달했던 곳이 회기동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20 문화 중 버츄얼 아이돌 등의 ‘서브컬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 계획은 홍대를 참고해서 서브컬처 페스티벌을 한 번 열어보고, 조건에 맞는 상가를 빌려서 서브컬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지역 상권도 같이 살아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동물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로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 오 의원은 “병원비가 사람보다 비싼 수준”이라며 “만러동물이 아프면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오기도 하는데 수입이 없는 학생이 이걸 대다가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처럼 동물 입양과 치료에 대한 공적인 영역의 보호가 있어야 동물을 키우는 청년들의 삶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싶어 이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 의원은 “후배들이 4년 뒤 ‘회기·이문이 살기 좋아졌네, 졸업해도 여기 살고 싶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받고 싶은 성적표”라며 “회기·이문에 청년이 스쳐가지 않고 정착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

전공교육의 시작, 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한다

전공기초·필수 과목은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자신의 전공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되는 과목이다.

또 향후 4년간 이어질 전공교육의 토대로서 단순한 입문 과목을 넘어 학과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전공기초·필수 과목을 누가 가르치는가는 대학이 교육의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주보가 지난 학기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29개 가운데 437개(25.3%)를 전임교원이 아닌 강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전임교원이 맡은 학과가 있는 반면, 상당수를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대학정보공시에 따

르면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대비 강사 규모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왔다.

강사의 강의가 전임교원의 강의보다 우수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교원 차이에 따른 개별 강의의 우열보다도 전임교원이 저학년 전공교육을 담당할 때 확보되는 교육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있다. 입학부터 졸업하기까지 학과의 교육과정 전체를 꿰고, 학생들이 전공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전임교원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강사가 맡는 전공기초·필수 과목이 늘어난다는 것은 강의 하나하나의 질과 별개로 학생과 학과를 잇는 교육의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다.

취재 결과 강사 담당 강의가 늘

어나는 배경은 여러 가지다. 전임교원의 정년퇴직과 연구년으로 생기는 공백, 수강 인원 에 따른 분반 확대, 새롭게 생기는 융합전공과 교육사업 등 신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과마다 처한 여건은 다르다. 또 일부 계열의 실기와 실무 중심 교육에서는 오히려 현장 경험에 풍부한 강사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었다. 모든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전임교원이 맡기에는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책임이 뒷전이 될 때다. 본부 역시 학부 전공교육은 전임교원이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학과별 특성과 교육 여건이 달라 확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

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마저 흐리는 이유가 되지는 안 된다.

적어도 학과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한 핵심 전공과목만큼은 전임교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교는 학과별 운영 여건을 면밀히 살펴, 전임교원 충원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공교육이 취약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전공교육이다. 학과마다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학과의 정체성이 담긴 핵심 전공수업에서만은 현실적 제약보다 교육의 책임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그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모호한 한국어강사 신분

직원도 교원도 아닌...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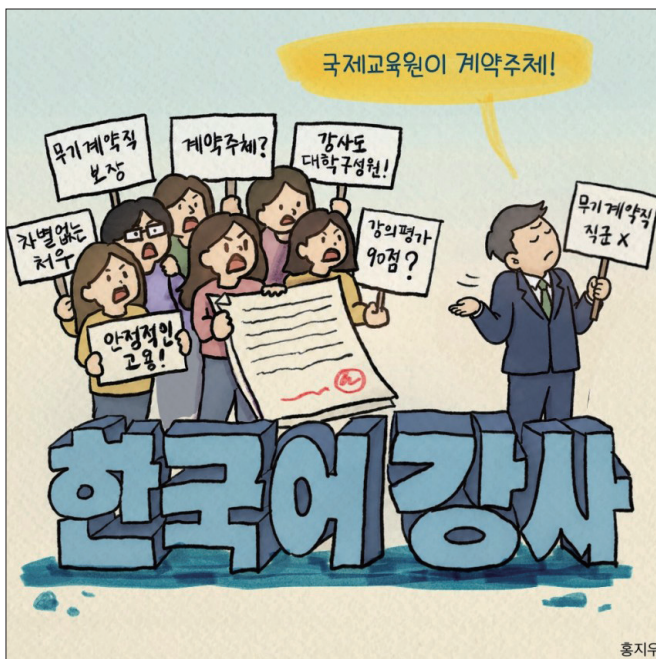


한 고용 구조이기 때문이다. 휴가 시 대체 강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강의 시간 외 노동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현실은 이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물론 인사 규정의 한계와 유학생 수 감소라는 학교 측 설명도 주의 깊게 들을 말이다. 하지만 대학이 필요에 의해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유학생을 현장에서 지탱하는 이들을 방치해서는 질 좋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요구는 경제적 요구라는 1차적인 목적을 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외국인 학생을 책임지고 싶다는 호소로도 들린다.

너무 오랫동안 갈등을 방치해왔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이든 비정상적인 인력 관리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기왕에 불거진 갈등이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지 않기를 기대한다. 어쨌든 그들은 유학생이 처음 대면하는 한국에서의 첫 선생님이 아닌가.



만평 끝나지 않는 갈등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신동면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세시봉

청소년 SNS 규제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정부가 SNS 연령 제한 입법에 나선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추천 알고리즘' 기능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안전법을 개정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금지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3,300만 달러(약 487억 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영국 역시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SNS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SNS 환경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무법지대다.

허위 정보 또는 맥락을 무시한 뉴스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 정치인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대중의 조종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은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또한 화면을 내리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는 '무한 스크롤'은 이용자를 중독에 빠지게 한다. 성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내리며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다가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은 다들 있을 것이다.

매일 오랜 시간을 그 속에 살게 된다면 성인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정부가 규제하려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성장기를 돌아보면 어른들은 종종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라며 이해할 수 없는 훈육을 했다. 지금에서야 정말 날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유해한 환경에 청소년을 아무런 거름망 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다만 연령을 제한해도 우회 수단이 존재하기에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호주에선 2025년부터 약 470만 개의 계정이 차단됐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꼴로 접속 중이다. 정부는 입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



조경반원들이 전정가위로 관목을 다듬고 있다.

(사진=홍지우 기자)

푸른 유산을 다듬는 손길

조경반이 지켜온 고향산 70년의 시간

신정빈 기자 wjdqls2002@khu.ac.kr
오채원 기자 chaewonnida@naver.com

매일 무심히 오가는 캠퍼스의 정돈된 풍경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른 아침부터 묵묵히 움직이는 우리학교 조경반의 노고가 숨어있다. 비가 내리던 7월의 아침, 우리신문 신정빈, 오채원 기자가 서울캠퍼스 곳곳을 가꾸는 조경반의 작업에 동행하며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빗속에서 시작되는 하루

지난 15일 오전 9시, 서울캠퍼스 국제교육원 앞. 가늘지 않은 빗줄기가 캠퍼스를 적시고 있었다. 방학을 맞은 캠퍼스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우산을 쓴 학생들 사이로 분주하게 작업 중인 우리학교 조경반의 모습이 보였다.

다섯 명의 작업반원은 전정가위로 관목을 다듬거나 빗자루로 잘려나온 잎과 가지를 쓸어 모으는 데 열중이었다. 임용식 작업반장은 작업 현장을 살피며 필요한 곳마다 손을 보았다.

빗자루가 젖은 잎과 가지를 쓸어

내는 소리와 전정가위가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메웠다.

조경반은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교내 수목과 조경 시설을 관리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캠퍼스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잡초를 뽑거나 잔디를 깎는 일부터 여름철 배수로와 맨홀 점검, 겨울철 제설 작업까지 도맡는다. 매 계절, 캠퍼스 곳곳엔 조경반의 손길이 닿아 있다. 작업은 매일 오전 7시에 시작돼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하루 일과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 조경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하던 작업을 멈추고 곧바로 현장으로 향한다. 장마철엔 배수로가 막히거나 운동장에 물이 고였다는 연락이 오기 일쑤다. 임 작업반장은 “종잡을 수 없다”며 “계획된 작업을 하다가도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생기면 멈추고 움직인다”고 말했다.

손끝의 감각으로 지켜온 풍경

그는 전정가위와 예초기, 장대톱, 송풍기 등 작업 장비를 하나씩 가리키며 각각의 용도를 설명했다.

전정가위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 높은 곳에 있는 가지는 장대 톱으로 자른다. 낙엽을 바람으로 모으는 송풍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브

로워’라고 불러요”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임 작업반장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손톱 사이에는 흙이 질게 배어 있었다.



①조경반 온실에 전정가위와 송풍기(브로워), 빗자루 등 작업 장비가 보관돼 있다. ②조경반원이 허리를 굽혀 화단의 잡초를 뽑아내고 있다.

(사진=홍지우 기자)

그는 손을 몇 번 쥐었다 펴 보이며 “장갑을 끼면 둔하다”며 습관 탓이라고 했다.

나무를 다듬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임 작업반장은 “둥근 게 예쁘면 둥글게 만들고, 네모난 게 보기 좋으면 네모나게 다듬는다”며 “이발사들이 머리 다듬는 거랑 비슷해서 예술한다고 생각하면 더 예뻐져요”라고 말했다.

때로는 5~6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를 정리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위험한 작업은 자제하도록 권하지만, 임 작업반장은 “학생들 위로 가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간다”고 말했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나’는 질문에 임 작업반장은 “벚꽃이 핀 캠퍼스를 찾은 이들의 칭찬을 들었을 때”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경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보람 때문이었다. 그는 “예전에 집에 있던 소나무 한 그루를 다듬어 놓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칭찬해 준 것이 시작이었다”며 웃었다.

세대를 잇는 손길

임 작업반장이 관목을 살피는 동안, 빗줄기 속에서 잎사귀들은 제 모양을 찾아갔다. 지금은 울창한 푸른빛을 띠고 있지만, 70여 년 전 학교가 들어설 당시 이곳은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무지였다.

학교 설립자 조영식 학원장은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에서 배우자, 자연에서 살자’는 문구를 내걸고 캠퍼스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당시 조경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캠퍼스의 뼈대를 만들었던 손길이 있었다면, 현재 조경반은 그 풍경을 묵묵히 지켜내는 중이다.

반세기 전 나무의 상태를 살피고 훼손된 곳을 손봤다는 우리학교 산림 관리인의 이야기가 우리신문에 남아있다. (대학주보 307호 3면, 1967년 4월 12일 자) 당시 우리 신문은 그를 ‘숨은 일꾼’이라 불렀다. 사람 수도, 장비도, 시대도 달라졌지만 그들이 맡은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바뀌는 계절에 맞춰 캠퍼스를 가꾸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켜왔다는 것. 다만 임 작업반장은 “나무도 나이를 먹고, 저도 나이를 먹어 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빗줄기는 여전했다. 뒤돌아본 자리에서, 조경반은 다시 빗자루와 가위를 들고 다음 작업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